

# 구약논단

제15권 2호(통권 32집) 2009년 6월 30일

김 진규(백석대)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	83
본 연구는 월슨의 제왕시 연구의 한 테제 “시편 89편의 메시지를 다윗 언약의 실패”라는 잘못된 결론을 검토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제 4-5권에 있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확인하며, 제 4-5권의 제왕시들의 신학적 특성을 재조명하였다. 시편 89편은 다윗계 왕의 일시적인 고난과 치욕과 거절이 있을 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났음을 밝힌다.	
Kim, Jinkyu Psalm 89 in Light of the Strategically Positioned Royal Psalms: Is the Davidic Covenant a Failed Mission? .....	83

---

##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

김 진규 | 백석대

### 1. 들어가는 말

월슨의 선구적인 역할로 인하여 시 2, 72, 89편이 시편 제 1-3권의 연결 부분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런데 월슨은 제 4-5권에서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확인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시 89편에 나타난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었다.<sup>2)</sup> 문제는 현재 많은 시편 학자들이 월슨의 견해를 별다른 비평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기초해서 여러 주석들이 출간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sup>3)</sup> 월슨의 접근 방법에는 논리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소위 말하는 시 89편의 실패한 다윗 언약에 대한 답을 제 4권의 '야훼 말라' 시편들에서 찾았다.

제 1-3권의 제왕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제 4-5권의 제왕시에서

---

1) G. H. Wilson,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쪽. 각주 42)를 참조하라.

2) 윗글, 90-92쪽.

3) 아래 각주 31)에 월슨의 이론에 기초한 주석서와 저자들을 열거하였다.

찾는 것이 논리상으로 타당하다. 그의 연구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전술한 대로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출판된 필자의 논문인 “제 4-5권에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열”에 기초해서 시 89편의 메시지가 이들 시편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sup>4)</sup> 그리고 특별히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 2. 시 89편의 역사적 배경

다수의 구시대의 비평 학자들은 시 89편을 몇 개의 개별적인 시의 집합으로 여겼다. 브릭스(Ch. Briggs), 부튼비저(Buttenwieser), 궁켈(H. Gunkel), 크라우스(H.-J. Kraus), 베올라(T. Veijola), 굴더(M. D. Goulder) 등은 전통 역사의 관점에서 시 89편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제안했다.<sup>5)</sup> 테이트는 시 89편에서 3가지 자료를 발견하였다:

- 1) 찬가적 찬양(시 89: 2-3, 6-19)
- 2) 다윗에 대한 신적 계시의 회고(시 89: 4-5, 20-38)
- 3) 종-왕을 유지시키지 못한 신적 실패에 대한 탄식  
(시 89: 39-52)<sup>6)</sup>

그러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석가들은 시편 89편의 세 부분에 나타나는 **הַשִּׁיר**(헤세드/인자하심; 시 89: 2, 3, 15, 25, 29, 34, 50)와 **הַשִּׁיר**(에무나/성실하심; 시 89: 2, 3, 6, 9, 25, 34, 50)의 어휘상 반복의 견지에서 이를 하나의 시편으로 여긴다.<sup>7)</sup> 그리고 제왕 모티프들이 이 시편에 주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 89편은 제왕시로 주로 분류된

4) Jinkyu Kim,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TJ* 70 (2008), 143-57쪽.

5) 이들의 견해에 관해서는 말빈 테이트의 주석을 참조하라. 참조 M. E. Tate, *Psalms 51-100* (WBC 20), (Dallas: Word Books, 1990), 413-414쪽. 시편 89편의 기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6) 윗글, 413쪽.

7) J. Clinton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1034쪽.

다.<sup>8)</sup>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하여 어떤 학자들은 시 89편 39절 이후의 내용이 요시아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기원전 609년), 혹은 여호야긴 왕의 역사적인 재난(기원전 597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9)</sup>

테이트도 시 89편의 확실한 역사적 배경을 정하기를 꺼리기는 하지만, 포로 시기나 포로 시기 이후에 이 시편이 쓰인 것으로 제안하였다.<sup>10)</sup> 몇몇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으로 제의적인 굴욕 의식을 제안하였지만, 이 견해는 워드(Ward)에 의해 호되게 비판을 받았다.<sup>11)</sup>

필자의 견해로는 본 시편의 가장 유력한 배경은 맥캔(McCann)이 제안한 대로 예루살렘과 제 1성전의 붕괴와 함께 다윗 왕국과 왕위의 파괴일 것으로 본다.<sup>12)</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시편의 내용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욱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훼손하셨으므로(시 89: 40-41/한39-40).

시 89편 47/한46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라는 탄성은 파괴의 상태가 한동안 지속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본 시편이 아마

---

8) 윗글, 1033쪽.

9) H.-J. Kraus, *Psalms 60-150: A Commentary*, H. C. Oswald(옮김), (Minneapolis: Augsburg, 1989), 202-4쪽; M. D. Goulder,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JSOTSup 20), (Sheffield: JSOT, 1982), 213-19쪽.

10) 테이트, 윗글, 416-17쪽.

11) J. M. Ward, “The Literary Form and Liturgical Background of Psalm LXXXIX” VT 11 (1961): 334쪽; A. R. Johnson, *Sacral Kingship in Ancient Israel*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55), 97-104쪽; G. W. Ahlström, *Psalm 89: Eine Liturgie aus dem Ritual des leidenden Königs* (Lund: C. W. K. Gleerup, 1959), 26쪽; H.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A Study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s the Integration of Society & N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318-20쪽도 참조하라.

12) 맥캔, 윗글, 1034쪽. 맥캔은 “가장 촉진제 역할을 한 사건은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에 따른 유대 군주의 소멸이었다.”고 기술했다. 맥캔에 따르면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이 시편은 “비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야기된 신학적 위기에 대한 명백한 진술”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시기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쓰인 것을 암시한다.

둘째, 시 89편 45/한44절(“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얹으셨으며”)에 나오는 강한 어조를 요시아나 여호야긴과 같은 유대 왕들의 죽음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이는 차라리 기원전 587/6년 예루살렘과 다윗 왕위 전체의 파괴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와드도 왕의 치욕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절 이하에 나오는 탄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은 “국가가 언약의 조건들 아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재난을 실제로 겪었던 것이고 이는 국제적인 충돌 가운데 경험했던 재난이었다.”라고 주장했다.<sup>13)</sup>

셋째, 39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철회에 대한 진술은 아마 다윗 왕통의 일시적인 부재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전체적인 파괴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시 89편의 메시지는 39절 이하에서 보여주듯이 다윗 언약의 현상적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 89편에는 다윗 언약(삼하 7: 11b-16)에 나타나는 어휘들, 모티프들,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רָצָה**(제라/찌; 삼하 7: 12), **כִּסֵּא**(키세/왕좌; 삼하 7: 13, 16), **רִחַם**(헤세드/인자; 샬하 7: 15), **אָב**(아브/아버지; 삼하 7: 14), **בָּנָי**(벤/아들; 삼하 7: 14), **עוֹלָם**(올람/영원; 삼하 7: 13, 16) 등이 시편 89편에도 나타나고 있다. 다윗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로 **רָצָה**가 3번 나온다(시 89: 5, 30, 37). **כִּסֵּא**가 다윗 왕좌를 지칭하는 말로 시편 89편 5, 30, 37, 45절 등에 나오며, 언약 언어인 **רִחַם**도 7회 나온다(시 89: 2, 3, 15, 25, 29, 34, 50). 하나님을 다윗계 왕의 **אָב**로 지칭하는 표현도 시편 89편 27절에 나타난다. **עוֹלָם**이라는 말도 7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5번(시 89: 3, 5, 29, 37, 38)이 삼하 7장 13, 16절에서처럼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다윗 언약의 주제가 시 89편 3-4, 29, 33, 36-37절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윗 언약에 표현된 조건절도 또한 시 89편 30-33절에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시 89편 33절에는 **שִׁבְטֵי**(세베타/막대기)라는 말이 삼하 7장 14절처럼 왕의 범죄를 위한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

13) 와드, 윗글, 334쪽.

14) 이의 신학적인 이슈는 김 정우의 논문을 참조하라. 김 정우, “시편 89편의 성경신학적 기여: 무조건적 언약 속에 있는 조건성의 수수께끼,” 『신학지남』 제 226호(1990), 11-52쪽.

다. 시 89편 39절 이후의 탄식 부분에서는 다윗 왕가의 영원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견지에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시 89: 40, 50). 나아가 시 89편에서 핵심적 언약 모티프인 하나님의 **אֱמֻנָה**가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אֱמֻנָה**(버리트/언약)의 영원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사르나(N. M. Sarna)는 시 89편의 기자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맞추기 위하여” 다윗 언약의 내용을 개작한 것으로 보았다.<sup>15)</sup> 이 사르나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피쉬베인(M. Fishbane)도 시 89편에서 원래의 다윗 언약에 ‘전략적 변화’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6)</sup>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드러난 편집자의 동기는 왕가의 위기에 역점을 두어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왕조의 위기가 분명한 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한편으로 강조하면서도, 시편 기자의 실제적인 문제는 그의 시대적 정황 속에 드러난 현실적 모순 때문이다.<sup>17)</sup> 삼하 7장 12-15절에 나오는 “아들”에 대한 지칭은 시 89편에서 다윗 왕가의 왕들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확장되었고, 이를 통하여 시편 기자는 동시대 왕의 위기를 곧 다윗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테이트에 의하면, 시 89편의 해석학적 열쇠는 시 89편 39-52절에 있다고 보았다.<sup>18)</sup> 이 부분은 언약의 현상적 철회에 대한 분명한 좌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버리셨으며”  
(39/한38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한39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47/한46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50/한49절).

15) N. M. Sarna, “Psalm 89: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A. Altmann (ed.), *Biblical and Other Stud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39쪽.

16)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467쪽.

17) 테이트, 윗글, 418쪽.

18) 윗글, 416쪽.

이 모든 증거들에 기초해서 윌슨은 “다윗 언약은 이제 실패한 언약이다. ... 여호와께서 다윗 언약을 존중하기를 거부하신 것이 시 89편의 중심부에 서 있는 문제이다.”라고 진술했다.<sup>19)</sup>

시 89편에 나타나는 문제가 다윗 언약의 실패였다고 보는 이 부정적인 평가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 견해는 본 시편과 이어서 따라오는 제 4-5권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윌슨은 이어 나오는 제 4권의 ‘아훼 말락’ 시편들을 시 89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윌슨은 ‘아훼 말락’ 시편을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편의 “신학적 심장”이라고 보았다.<sup>20)</sup> 과연 시 89편에 제시된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 3. 시 89편과 제 4-5권과의 관계

윌슨에 의하면 시편 제1-3권의 연결부에 위치한 제왕시들 사이에 “분명한 주제상, 신학상의 발전”을 관측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시 1편(편집상 추가된 것)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간주하고, 제왕시인 시 2편이 제 1권의 첫 부분에 위치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 1권이 다윗 언약과 왕권이란 주제에 의해 압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2)</sup> 시 72편에 대해서 윌슨은 제 2권을 종결짓는 시 72편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첫 두 구절은 다윗이 그의 후계자를 위해서 한 기도로 읽혀져야 한다고 보았다.<sup>23)</sup>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시 72: 1-2).

19) 윌슨, 윗글(1986), 90쪽.

20) 윗글, 92쪽.

21) 윗글, 88쪽. 여기서 윌슨은 시편 2-89편의 편집 단계들 내에서 제왕시들의 주제상 발전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왕시들을 시편 전체의 맥락 속에서 고려하면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다. 아래의 토론을 참조하라.

22)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5), 209쪽; 윌슨, 윗글(1986), 88쪽.

23) 윌슨, 윗글(1986), 88-89쪽. 표제(הַמְלִיכִים)에 나오는 “라메드”가 “의해서,” “위해서,” 혹은 “대해서”로 읽혀져야 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헬라어 시편과 많은 옛 번역들은 이 표제를 “솔로몬에 의해서”라기보다 “솔로몬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리하여 윌슨은 “그래서 야훼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시편 2편)은 다윗의 확신의 원천으로 쓰이는데(시 41편) 이제 ‘왕의 아들’(시 72편)을 위한 이 일련의 간구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된다.”고 했다.<sup>24)</sup> 그런데 제 3권에는 다윗 모티프들이 첫 두 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2편에 시작되고 시 72편에 발전된 다윗 언약의 주체는 위에서 관측했듯이 제 3권의 마지막 시편(시 89편)에 명백하게 다시 드러난다.<sup>25)</sup> 전술했듯이, 윌슨은 시 89편은 주로 야훼께서 다윗 언약을 철폐하신 것과 관계된다고 보았다.

윌슨은 시 2-72편의 편집 배경을 다윗 언약과 왕권이 아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 73-89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은 좌절로 인하여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수정된 희망의 증거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26)</sup> 그래서 윌슨은 시편 제 1-3권은 “다윗 언약에 기초한 다윗 왕통의 희망들에 대한 포로기의(혹은 포로귀환 이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sup>27)</sup> 윌슨은 제 4권(시 90-106편)이 시편의 마지막 형태의 편집상 중심부이고, 시 89편에 제기된 다윗 언약의 현상적 실패라는 문제점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요컨대 윌슨의 답은 야훼를 왕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 4가지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 (1) 야훼는 왕이시다.
- (2) 왕이 존재하기 오래 전(즉 모세의 시대) 과거에 그는 우리의 ‘피난처’였다.
- (3) 이제 왕이 없어졌으므로 그 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 (4) 그를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sup>29)</sup>

24) 윌슨, 윗글(1986), 89쪽. 윌슨에 따르면 제 1권의 끝에 제왕시가 없는 이유는 편집자가 제 1권과 제 2권을 (시 72: 20의 발문이 입증하듯이) 하나의 다윗 시편들의 수집물로 보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25) 윌슨, 윗글(1985), 212쪽; 윌슨, 윗글(1986), 89-90쪽. 윌슨이 관측하고 있듯이 제 3권에 다윗 시편은 단 하나(86편)만 등장하고 있다.

26) 윌슨, 윗글(1986), 91-92쪽.

27) 윗글, 92쪽.

28) 윌슨, 윗글(1985), 212-15쪽(특히 215쪽).

월슨에 따르면 제 5권은 다윗이 야훼의 율법(이는 제 5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시 119편의 핵심적인 내용)에 순종함으로써 야훼의 왕권을 신뢰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30)</sup>

이와 같은 월슨의 견해는 후대의 시편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후대의 시편 학자들은 이 연구에 기초해서 제왕시들을 해석하였고, 이는 곧 시편 전체를 읽는 방법과 메시지를 결정하였다.<sup>31)</sup> 예를 들면 맥켄은 월슨의 견해를 좇아서 다윗 왕권은 “실패한 신적 실험-실수”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맥켄은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두 책에서 찾았다.<sup>32)</sup> 이 견해는 월슨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월슨이 제 1-3권의 연결부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제왕시들을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89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패한 다윗 언약으로 여긴 점과 또한 이에 대한 답을 단순히 “야훼 말락” 시편들에서 찾은 것은 큰 해석학적 문제점을 남겼다. 그는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89편의 메시지와 이들의 메시지를 연결시키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시 89편의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월슨의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마지막 두 책을 포함한 시편 전체의 제왕시들의 맥락에서 보면 시 89편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윗 언약과 왕권이라는 주제는 시 89편이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어조 때문에 제 4-5권에서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시 132편에서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주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찌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들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

29) 윗글, 215쪽.

30) 윗글, 220-228쪽.

31) 예를 들면 다음 주석들은 월슨의 연구에 기초한 주석서들이다.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NEchtB 29),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J. L. Mays,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4); K. Seybold, *Die Psalmen* (HAT 1: 15), (Tübingen: Mohr, 1996); 맥켄, 윗글(1996).

32) 맥켄, 윗글(1996), 1034, 1037쪽.

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시 132: 11-12).

시편 제 4-5권은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기대는 포로 귀환 이후의 예언적 시대 정신과 함께 종말론적 메시아 소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로 다시 활기를 띄게 된다.<sup>33)</sup> 나아가 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는 시편 제 4-5권에 있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밝힘으로써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 4.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

월슨의 연구에 치명적인 약점은 제왕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지 제 1-3권으로 범위를 제한한 데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발견한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가 시 2, 72, 89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제한된 연구를 기초로 해서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찾으려는 시도는 논리상으로 봐도 모순이다. 사실 월슨의 제왕시 연구의 실패는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시 2, 72, 89편은 제 1-3권의 연결부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기가 대체로 용이하다. 그러나 제 4-5권에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큰 걸림들은 제 4권과 제 5권의 마지막 시들이 제왕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논문 “제 4-5권에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열”에서 필자는 월슨이 실패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sup>34)</sup> 몇몇 학자들이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를 부분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했다.<sup>35)</sup> 그러나 필자는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 전체의 전

33) 필자의 박사과정 논문 제4장을 참조하라. Jinkyu Kim,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176-286쪽. 필자는 제4장에서 대표적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 텍스트들(스 9-14장; 율 3-4장[MT]; 겔 34-48장)이 제왕시인 시편 110편과 저작(혹은 편집) 시기, 종말론적 어휘소와 구절들, 중심 주제들과 모티프들, 문체상 특성, 내용과 신학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시편 110편의 장르를 “종말론적 시편”으로 재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34) 김 진규, *윗글*(2008), 143-57쪽.

35) 예를 들면, K. Koenen, *Jahwe wird kommen, zu herrschen über die Erde: Ps 90-110 als Komposition* (BBB 101), (Weinheim: Beltz Athenäum Verlag, 1995), 110-11쪽은 제왕시 101,

략적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지면상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다만 제 4-5권에 나타나는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편집상 특징

먼저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제 4-5권의 편집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 4-5권과 제 1-3권을 구분 짓는 편집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윌슨은 4가지 분명한 편집상의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 (1) 명백한 조직 기술의 차이
- (2) הללויה, וורו 시편의 제 4-5권 편제 현상
- (3) 저자나 장르를 지칭하는 타이틀의 제 1-3권 편제 현상
- (4) 표제가 붙은 시편이 제 1-3권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제 5권에는 표제가 드문 현상<sup>36)</sup>

후르비츠(Hurvitz)도 언어적 데이터를 기초로 마지막 3권이 늦게 쓰인 증거들을 찾았다.<sup>37)</sup> 그리고 마지막 두 책에서는 제 1-3권에서 보이는 책간의 두드러진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sup>38)</sup> 결국 이는 제 4-5권이 제 1-3권과는 구분된 독립적인 편집 단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신학적 동기

1,0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의 편집 배경에는 수많은 편집자들과 편집의 단계들과 편집자들의 신학적 동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눈 것은 어떤 한 편집자에 기인하였을 것이고, 제왕시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은 또 다른 편집자에 기인하였을

---

110편의 전략적 위치 파악을 시도하였고, E. Zenger,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SOT* 80 (1998), 77-107쪽과 D.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도 제 5권에 나오는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36) 윌슨, *윗글*(1986), 87쪽.

37) A. Hurvitz, "Linguistic Criteria for Dating Problematic Biblical Texts," *HA* 14 (1973), 74-79쪽.

38) 김 진규, *윗글*(2008), 144-45쪽을 참조하라.

것이고, 제 4-5권내의 하위 그룹을 나눈 것은 또 다른 편집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한 편집자들과 편집 단계를 가정한다면, 제 4권과 제 5권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제 4-5권내에서 다양한 하위 그룹을 나눈 독특한 조직 원리가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 원리가 제 4-5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이들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제 4권과 제 5권의 구분이 존재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또 다른 조직 원리에 의해서 하위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이 하위 그룹 내에서 제왕시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행한 것은 제 4-5권에는 책 구분과는 별도로 분명하게 구별된 하위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9)</sup>

- 시 90-110편(90-101편과 102-110편이라는 2개의 평행 구조:  
101, 110편이 제왕시)<sup>40)</sup>
- 시 111-118편(송영시들)
- 시 119편(거대한 지혜시)
- 시 120-134편(성전에 올라가는 시; 132편이 제왕시; 134편  
은 송영시)
- 시 135-145편(144편이 제왕시; 145편은 송영시)
- 시 146-150편(시편 전체의 결론; 송영시들)

위의 구조에서 시 119편을 중심에 두고 있는 대략적인 교차 대구 구조(chiastic structure)를 관찰할 수 있다. 교차 대구의 제일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시 90-110편 그룹과 시 135-145편 그룹에 다윗 시편들이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 4-5권의 구조는 다윗 시들이 토라 모티프들로 가득 찬 지혜시(119편)를 중심에 두고 있는 구조이다.<sup>41)</sup>

사실 지혜시와 제왕시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

39) 이들 하위 그룹들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지면상 생략하겠다. 필자의 윗글(2008), 145-53쪽을 참조하라.

40) 필자는 이 하위 그룹을 구분 짓는데 있어서 코에넨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참조 코에넨, 윗글, 110-11, 129-30쪽.

41) 시편 90-110편 그룹 내에서는 시편 101, 103, 108-110편이 다윗 시들이고, 시편 135-145편 그룹 내에서는 시편 138-145편이 다윗 시들이다.

언약과 왕권의 존립이 주로 왕의 율법 준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하위 그룹들 내에서 제왕시들이 제 1-3권에서처럼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 3)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

윌슨이 제왕시들(시편 2, 72, 89편)이 제 1-3권내에서 연결부 부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을 발견한 이후에, 현재 학계에서 그의 이론은 거의 공식화되었다.<sup>42)</sup> 윌슨은 시편의 편집자가 이들 제왕시들을 제 1-3권의 시작과 끝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다윗 언약과 왕권이 시편의 메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술한 대로 각 권들 사이에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주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sup>43)</sup> 또한 제 1-3권의 마지막은 송영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 1-3권의 송영들은 주로 1-2절 이내로 짧게 끝을 맺고 있다(시 41: 13; 72: 18-19; 89: 52). 그리하여 윌슨은 제 1-3권의 마지막은 제왕시와 아울러 짧은 송영으로 끝난다는 개략적인 원리를 도출해 냈다.

이제 이슈는 제 4-5권내에서도 제왕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밝힌 대로 제 1-3권과 제 4-5권 사이에는 편집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와 송영으로 종결짓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제왕시의 위치도 책 단위로 다루는 대신에, 단지 하위 그룹 단위 안에서 이의 위치를 탐색할 뿐이다. 왜냐하면 제 4-5권에서 제왕시의 위치

42) 윌슨, 윗글(1986), 85-94쪽; J. C. McCann, Jr.,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3-107쪽; P. D. Miller, J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83-92쪽; E. Zenger, "Der Psalter als Wegweiser und Wegbegleiter: Ps 1-2 als Proömium des Psalmenbuchs." A. Angenendt/H. Vorgrimler(Hg.), *Sie wandern von Kraft zu Kraft: Aufbrüche, Wege, Begegnungen*, Festgabe für Bischof R. Lettman, (Kevelaer: Butzon & Bercker, 1993), 29-47쪽; E. Zenger, "Das Weltenkönigtum des Gottes Israels (Ps 90-106)," H. Merklein/E. Zenger(Hg.), *Der Gott Israels und die Völker: Untersuchungen zum Jesajabuch und zu den Psalmen* (SBS 15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4), 151-78쪽; 코에넨, 윗글, 110-11쪽; 밋첼, 윗글, 243-71쪽.

43) 윌슨, 윗글(1986), 88-92쪽.

를 책 단위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 4-5권의 편집상 차이점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위에서 발견한 제 4-5권의 하위 그룹들 내에서 제왕시들이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시 90-110편 그룹 내에서 제왕시는 101편과 110편이다. 이는 코에넨의 분석처럼 시 90-101편과 시 102-110편이 평행 구조를 이루는데, 제왕시는 각 그룹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sup>44)</sup> 무엇보다 코에넨이 지적한 대로 시 90-110편을 2개의 별개의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단위로 볼 때 시 110편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 그룹 안에서 마지막이 제왕시로 끝나는 점은 윌슨의 구도와 일치하지만, 끝에 짧은 송영이 따라 붙지 않은 것이 다르다. 대신 시 110편에 이어서 나오는 거대한 할렐 시편(111-118편)들은 전체가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 4-5권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제왕시와 함께 송영으로 끝나는 구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송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 편집자 혹은 편집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이곳에만 긴 송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4-5권내의 다른 제왕시들도 긴 송영이 따라오는 것을 아래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 120-134편 그룹에서는 시 132편이 제왕시이고 134편이 송영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시 133편이다. 샌드위치처럼 긴 이 시 때문에 이 그룹 안에서 제왕시와 아울러 송영으로 끝나는 매끄러운 구조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시 132편과 133편은 '시온'이란 핵심 용어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45)</sup>

그러므로 시 132편과 133편을 하나의 단위로 봄으로써 134편과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 그룹에서 제왕시는 그룹의 거의 끝에 위치하고 있고 이어서 송영이 따라옴으로써 윌슨의 구도를 개략적으로 따르고 있다. 또한 시 135-136편이 송영인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도 제왕시에 이어서 시 134-136편이라는 일련의 송영 시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4) 코에넨, *윗글*, 110-111쪽.

45) 시온 전승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박 종수의 글을 참조하라. 박 종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 전승," 『구약논단』 제9집(2000년 10월), 167-189쪽.

마지막으로 시 135-145편 그룹에서는 시 144편이 제왕시이고 145편이 송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제왕시와 아울러 송영으로 끝이 나는 매끄러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제 4-5권 전체의 범위에서 볼 때, 제왕시인 시 144편에 이어서 시 145-150편이라는 일련의 거대한 송영이 따라오고 있는 구조이다.

요컨대, 제 4-5권의 하위 그룹들 내에서 제왕시들은 대체로 종결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어서 일련의 긴 송영이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3권의 제왕시 위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제왕시에 이은 송영의 구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테이블 1〉 제 4-5권 안에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sup>46)</sup>

하위 그룹	제왕시	종결 송영	추가적 송영들
시 90-110편	시 110편	시 111편	시 112-118편
시 120-134편	시 132 (+133)편	시 134편	(시 135-136편)
시 135-145편	시 144편	시 145편	시 146-150편

이제 이와 같은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윗 언약과 왕권에 대한 메시지는 제 4-5권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의 맥락 속에서 시 89편의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 5. 제왕시들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의 다윗 언약

시편 제 4-5권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왕시들은 시 89편의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제 1-3권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왕시의 메시지는 제 4-5권에서도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왕시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논리상 타당하다.

먼저 제 4-5권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시편들인 101, 110, 132, 144편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이의 맥락 속에서 시

46) 김 진규, *윗글*(2008), 157쪽.

89편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하겠다.

### 1) 시 101, 110, 132, 144편의 메시지

#### (1) 시 101편의 메시지

시 101편은 제 4권에 있는 유일한 제왕시인데, 이의 전략적 위치는 다윗 왕권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윌슨에 따르면, 시 89편에 제기된 다윗 언약에 대한 현상적 실패에 대한 답을 제 4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sup>47)</sup>

그러나 그 답은 “야훼 맥락” 시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제왕시에서 찾아야 논리상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 89편이 앞에 나오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시편 2, 72편)과 연결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듯이, 이에 대한 해답도 제 4-5권에 나오는 제왕시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시 101편은 포로기에 다윗 왕통이 폐쇄된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왜 시편의 편집자가 이 특별한 제왕시를 이 특별한 위치에 두었는가?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 언약이 요구하는 왕의 표준을 따르고자 하는 왕의 회개와 결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시의 현재 맥락 속에서 다윗계 왕은 흠이 없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에 기초해서 야훼의 징계를 멈추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삼하 7: 14b; 시 89: 31-33).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시 101: 2).

시 72편처럼 시 101편도 삼하 7장 14b절에 나오는 조건 절의 신학적 연장선에 놓여 있다. 두 시편의 첫 절에는 모두 야훼의 **צדק**(미서파트/공의)를 포함하고 있다. 전략적 맥락 속에서 시 72편은 솔로몬의 공정하고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징계의 조건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다윗이 드리는 기도이다. 반면에 시 101편은 왕이 그의 개인적인 삶(시 101: 1-4)과 그의 백성의 삶(시 101: 5-8)에 있어서 야훼의 표준을 만족시킬 결

47) 윌슨, 윌클(1985), 215쪽.

심에 기초해서 다윗계 왕의 회복을 호소하는 것이다. 왕이 공정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에 다윗계 왕이 용서받고, 치유 받고, 구속 받고, 회복되는 메시지가 이어서 시 103편(다윗 시)에 나온다(시 103편은 시 101편 외에 제 4권에 존재하는 유일한 다윗 시이다.).

## (2) 시 110편의 메시지

시 110편은 외관상 다윗 언약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시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삼하 7편 11b-16절의 신학적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제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삼하 7장 11b-16절의 다윗 왕국과 왕권에 대한 약속이 시 110편에서 실체화된다. 야훼께서 적들을 정복하고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핵심적인 주제는 다윗 언약에 약속된 다윗 왕국을 확장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본문(삼하 7: 11; 시 110: 1, 2)은 적들을 묘사하는 데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삼하 7장 13,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영원성(עוֹלָם-עַד)이라는 모티프는 시 110편 4절에 다윗계 왕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영원성(עוֹלָם)의 견지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 시 72편과 101편이 다윗 언약의 조건 절과 주로 관계된다면, 시편 2편과 110편은 정복하고 복종시키는 다윗계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편의 맥락 속에서 시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sup>48)</sup> 시 107편(제 5권의 첫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야훼의 יְיָ(헤세드/인자하심)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시 110편이 비록 군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의 위치는 포로 시기 이후의 메시아 희망이라는 문학적 맥락 속에서 발견됨을 의미한다. 제 4권과 5권의 배경상 차이점을 시 102편 13절(4권)과 시 107편 1-3절(5권)에서 관측할 수 있다. 전자에 나타나는 회복을 위한 간구가 후자에서는 회복된 것에 대한 찬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48) 참조, 맥켄, 윗글(1996), 1131쪽. 맥켄에 의하면 “시편 110편은 시편 속에서 자리잡게 되었을 때 이미 메시아적인 것으로 이해된 것 같다. ...”고 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찌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시 107: 2-3).

야훼의 מִשְׁחָה(마시아흐/기름 부은 자)는 시 89편 39-52절에서 고난을 당했고 시 132편 17절에서는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기 전에 시 110편에서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시 2편 8-9절의 다윗계 왕이 다윗의 왕좌에 등극할 때에 주어진 세상 정복의 약속이 시 89편에는 왕의 현상적 폐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시 110편 1-2, 5-6절에서 사실상 성취된다. 전술한 대로 시 2편과 110편간의 많은 어휘와 주제상 병렬 구조들이 세계 정복이라는 모티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지지하게 된다. 메이즈(Mays)는 시 110편의 맥락상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시 110편이 시편에 병합이 되었을 때,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표현하는 제의적 실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고, 대신에 하나님의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이었다. 시편의 마지막 삼분의 일의 지점에 시 110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시편을 마지막으로 배열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해되어진 방식을 표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 시편은 시 89편과 이에 등장하는 거절된 메시아에 대한 탄식에 이어서 등장한다. 이는 야훼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열방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시 2편의 약속들을 반복하고 확증하는 예언적인 목소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패배시킬 때까지 메시아는 “그의 우편에 앉아 있다.”<sup>49)</sup>

무엇보다도 시 110편과 종말론적 예언들과의 놀라운 유사성들은 본 시편을 메시아의 종말론적 전쟁의 견지에서 이해하도록 확증시켜 준다. 특히 속 9장과 본 시편 사이에 어휘들, 구절들, 모티프들, 주제들, 이미지들, 신학에 있어서 유사성이 두드러진다.<sup>50)</sup>

49) 메이즈, 윗글(1994), 353쪽.

50) 김 진규, 윗글(2003), 126, 207-31쪽.

### (3) 시 132편의 메시지

시 132편은 시 110편 이후에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시편인데, 이는 다윗 언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 132편 11-12절은 삼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편은 “삼하 6-7장에 나오는 자료를 포로 시기 이후의 세대들에게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sup>51)</sup>

시 132편은 시 89편의 주제와 관계를 맺고 나아가 더욱 발전시켰다. 다윗 언약을 묘사하는 핵심 단어들에 있어서, 시 132편은 삼하 7장보다 시 89편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시 132편과 89편은 삼하 7장 11b-16절에 나타나지 않는 신학화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실례, **קָרַח**, **עָבַשׁ**, **מִשִּׁיחַ**의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편은 다윗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 132편과 89편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시 89편 후반부(시 89: 39-52/한38-51)를 압도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시 132편에서는 사라진다. 시 132편에는 다윗계 왕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만 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시 132: 17). 분명히 시 132편에서는 야훼께서 다윗계 왕을 시온에 앉힌다. 시 89편 39/한38절에서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מִשִּׁיחַ**의 관을 옥되게 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만, 시 132편 18절에서는 **מִשִּׁיחַ**의 관이 “광택을 낼 것”이라고 말한다. 시 89편 39절에 나오는 언약의 폐기에 대한 불평이 시 132편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시 89편 43/한42절에 나오는 적들의 의기양양함과 희락의 모티프는 시 132편 18절에서 역전된다(“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 야훼의 분노(시 89: 39, 47)에 대한 어떤 흔적도 시 132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적들이 **מִשִּׁיחַ**를 조롱하는 대신에(시 89: 52), 야훼께서 그를 위해서 **נֶרְ**(내르/등)를 준비하신다(시 132: 17). 다윗계 왕에 대한 이런 시각의 차이점들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포로 시기 이후 이스라엘에 메시아 희망이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시 132편의 내용은 메시아의 실제적 통치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

51) 맥켄, 윗글(1996), 1211쪽. 맥켄은 역대기 기자(대하 6: 41-42)가 시편 132: 8-9을 사용한 것은 이의 늦은 유래를 암시한다고 보았다. 메이즈도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윗글[1994], 411-12쪽).

인다. 이 시가 시편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라는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메시아 약속과 야훼의 시온 중심의 목적”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sup>52)</sup> 시 89편이 메시아의 고난과 거절을 묘사한다면, 시 132편은 야훼의 거처(시 132:13-14)인 시온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89편이 다윗 언약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불평의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편 132편은 다윗 언약을 포로 시기 이후에 부활한 메시아 소망을 위한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시 132편 17절에 나오는  $\text{לִמְשִׁיחַ}$ ,  $\text{מֶלֶךְ}$ ,  $\text{מִיְשׁוּבָה}$ 와 같은 용어들은 메시아를 세우실 야훼의 의향을 확실히 드러낸다.

#### (4) 시 144편의 메시지

시 144편은 양식 비평가들에 의하면 주로 ‘혼합 양식’(a mixed form)으로 분류된다.<sup>53)</sup> 시 144편 1-11절은 1인칭 단수로 표현된 왕의 불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 144편 12-15절은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님이신 백성들의 축복들을 다루고 있다.<sup>54)</sup> 양식 비평의 방법론으로는 본 시의 기원과 배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차라리 본 시는 시 18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의 관점에서 이 시의 기원과 배경을 찾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의 자료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을 관찰하면 편집상의 관심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시 144편이 시 18편을 사용하는 데는 단순한 “기계적인 차용이 아니라 자료를 재배열하고, 조합하고, 확장해서 왕의 감사로부터 왕의 불평으로 시각을 바꾼 것”이다.<sup>55)</sup> 놀라운 사실은 ‘왕의 감사’(시 18편)로부터 ‘왕의 불평’(시 144편)으로의 전이이다. 이것은 시편의 초반부에서 끝으로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에 역행하는 변화이다.<sup>56)</sup>

52) L. C. Allen, *Psalms 101-150* (WBC 21), (Waco, Tex.: Word Books, 1983), 209쪽.

53) 윗글, 289쪽. 이 때문에 궁겔은 그의 주석에서 시편 144편을 2개의 별개의 본문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참조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sup>5)</sup>, 604-609쪽.

54) 메이즈, 윗글(1994), 435쪽.

55) 여기에는 알렌이 바우만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윗글, 289쪽).

56) 시편의 분위기는 탄식시에서 찬양시로 전이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참조 C.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K. R. Crim(옮김), (Atlanta, Ga.: John Knox, 1981), 257쪽.

시편 기자가 시 144편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편집한 동기는 무엇일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시 110, 132편처럼, 시 144편도 스가랴(특히, 슝 14장)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시 144편의 첫 절은 시 18편 3, 35절을 각색한 것이다. 왜 시편 기자는 시 18편 35절(18편의 2/3 지점에 위치함)에 나오는 전쟁 준비 이미지를 본 시의 첫 절에 두었을까? "...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시 144: 1). 시편 기자는 슝 14장 초두에 나오는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종말론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시 18편 3, 35절을 개작하여 시 144편 1절을 만든 것 같다. 슝 14장에 의하면 적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약탈한다. 심지어 또 다른 **קָרָא**(콜라/추방)가 슝 14편 2절에 언급되어 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קָרָ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슝 14: 2).

이렇게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에 대비해서 시편 기자는 시 144편을 지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전쟁에 대비해서 종말론적 다윗(비교, 겔 34: 23-24; 37: 24-25)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이다.<sup>57)</sup> 이것이 바로 본 시가 야훼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시 144: 1)라고 시작하는 이유이다. 게다가 시 144편 1-11절의 전쟁 이미지는 슝 14장의 전쟁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sup>58)</sup> 시 144편 5절도 시 18편 10절의 본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시 144: 5). 이 구절의 뒷부분은 원래 자료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시 18편 10절에서 사용하지 않은 **נָגַח**(나가/접촉하다)라는 동사를 시 144편 5절에서 사용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암 9장 5절과 시 104편 32절에서처럼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종말론적인 편집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9)</sup>

57) 겔 34: 23-24; 37: 24-25에 나오는 다윗은 역사적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의 또 다른 타이틀이다.  
58) 많은 주석가들은 시편 144편의 전쟁 이미지를 관측했다. 궁겔은 1-11절의 배경을 전쟁 전에 앞서는 일로 여겼다(윗글, 605쪽). 알렌도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윗글, 291쪽).

시 144편 5절에서 **הַרִיב**(하림/산들)이란 말을 사용한 것도 속 14장 4절에 나오는 산의 모티프와 유사한데, 후자에서는 야훼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속 14장 5절에도 시 144편 5절과 같이 **הַרִיב**과 **עָנָנִים**라는 동일한 핵심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시 144편 5절에서 시 18편 10절을 재해석한 것도 속 14장 4-5절과 유사하다.

시 110편처럼 시 144편 5절에서도 종말론적 전쟁에 있어서 신적 지도력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 시 144편 6절은 또한 비록 어순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 18편 15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 144편 6절에서 이 구절을 사용한 것은 시편 기자가 역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יָרָה**(헤츠/화살)와 **הַמָּד**(하맘/혼란케 하다)이라는 어휘들은 주로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sup>60)</sup> 시 144편 12-15절에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도 속 14장 11, 16-19절에 묘사된 종말론적 축복과 매우 유사하다. 그 외에도 시 144편과 종말론적 텍스트인 속 14장과의 유사성을 더 발견할 수 있으나, 지면상 생략하겠다.<sup>61)</sup> 시편 기자는 속 14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축복의 이미지와 전쟁 이미지의 혼함을 시 144편을 작시하는 데 모델로 사용한 것 같다. 야훼께서 종말론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에(속 14: 9), 예루살렘 도성에 종말론적 평화와 축복이 오게 된다(속 14: 11). 이 그림이 시 144편 12-15절의 모델을 제공한 것이다.

시편의 맥락 속에서 시 144편은 시 110편 이후의 종말론적 전쟁이라는 주제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시 110편은 야훼의 지도하에 메시야의 초기 종말론적 전쟁과 주로 관계된다. 시 89편에서 메시야가 고난과 거절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시 110편에서 승전하는 초기의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한 후에, 시 132편은 메시야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9) 쿡(S. L. Cook, "Apocalypticism and the Psalter," ZAW 104 [1992], 97쪽)은 이를 "묵시론적 편집"(apocalyptic redaction)으로 간주했으나 넓은 범주에서는 묵시론적 편집도 종말론적 편집의 범주 안에 속할 것이다.

60) 윗글, 97-98쪽 참조.

61)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2008년도에 발표한 논문인 "Background on the Composition of Ps 144 in Light of its Strategic Arran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Providence, RI., November 19, 2008), 1-16쪽을 참조하라.

시 132편에 묘사된 메시아의 통치 이후에, 시 144편 1-11절에 묘사된 대로 마지막 종말론적 고난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께서 하늘로부터 “감람 산”에 강림하실 것이고(슥 14: 4; 비교, 시 144: 5) 적들을 정복하신다(슥 14: 4, 9-19). 이 마지막 승전 이후에 풍성한 종말론적 축복이 있을 것이다(시 144: 12-15). 12-15절이 종말론적 축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메시아 왕국의 축복들이 묘사된 시 72편 3, 16절의 유사한 개념들에 의해서 더욱 확증된다.

## 2) 시 89편의 메시지

시 89편은 두 부분의 메시지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인 2-38[1-37]절에서는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영원성의 견지에서 찬양하며 확증하고 있고, 후반부인 39-53[38-5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윗계 왕의 패배와 치욕과 죽음이라는 역사적 괴리에 실망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적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진실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반부의 주된 초점은 다윗 언약에 약속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단순히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야훼의 두 가지 두드러진 성품(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견지에서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2, 3, 25, 34절). 시 89편 초두의 2-3절에서 시편 기자의 찬양은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영원함에 있다. 여기에 “인자하심”(רַחֲמִים)이란 롱맨(T. Longman III)이 잘 번역하고 있듯이 “언약적 사랑을 겸한 친절”인 것이다.<sup>62)</sup> 그리고 “성실하심”(אֱמוּנָה)과 “진실함”(אֱמֶת) 15절이라는 말도 언약을 지키는 야훼의 신실하심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인자하심”과 “진실함”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사용되었다(출 34장).<sup>63)</sup>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야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영원성이다.<sup>64)</sup> 그래서 2-5절의 맥락에서 보면,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야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영원성이라는 관점에서 변증하되, 특히 야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 두 성품에 기초하여 변호하

62)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the Psalms*, (Downers Grove, Ill.: IVP, 1988), 58쪽.

63) R. W. L. Moberly, “1 ♫,” *NIDOTTE* 1:427-433쪽.

64) 매이즈, *빛글*(1994), 285쪽.

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전반부에서 여러 차례 야훼의 성품에 기초하여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25/한24).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29-30/한28-29).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34-35/한33-34).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다윗 왕조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시편 기자는 야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50/한49). 시편 기자의 실망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39/한38, 52/한51)의 치욕과 패배와 죽음(46/한45)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야훼의 변치 않는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성품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후반부 해석의 결정적 열쇠를 시편 기자의 또 다른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47/한46). 시인은 역사적 현실 앞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까지니이까”라는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이 때는 아마도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나기까지가 아닐까?(참고, 렘 25: 11, 12). 제 5권을 시작하는 시 107편(2-3절)에서는 포로 귀환을 알리는 기쁨의 메시지가 있다. 그 이후에 시 110편에서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다스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조는 다시 세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소망은 제 4-5권의 제왕시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난다. 그러므로 시 89편은 메시아의 일시적인 고난과 굴욕과 거절에 대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 미래 언젠가 야훼께서 그를 다시 세우실 희망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5)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인 시 2, 72, 89, 101, 110, 132, 144편 사이의 주제상 발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모든 제왕시들은 삼하 7장 11b-16절에 계시된 다윗 언약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각 제왕시는 이것이 언급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 독특한 각도로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편의 마지막 형태라는 맥락 속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은 메시아의 등극(시 2편), 왕국의 도덕성(시 72편), 거절(시 89편), 승리(시 110편), 통치(시온에서; 시 132편),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과 축복(시 144편)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제 1권의 초두에 위치하고 있는 시 2편은 시온에 메시아가 취임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다윗 언약에 기초해서 메시아가 야훼의 아들이 된다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시 72편은 제 2권의 끝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메시아의 의롭고 공정한 통치를 묘사하고 있다. 이 시편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그의 왕국의 도덕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89편은 제 3권의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메시아의 고난과 치욕과 거절을 묘사하고 있다. 야훼께서 다윗께 왕의 영원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버리는 것은 다윗 언약을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메시아의 희망은 공기 중에 증발해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메시아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시 89: 47/한46)라고 기도하는 이유이다.

기대한 대로 메시아는 시 110편 1절에서 야훼의 오른편에 앉은 인물로 다시 등장한다. 야훼께서 메시아의 전쟁을 능동적으로 이끌며 그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 시 110편 4절에서 메시아에게 ‘뿔기세택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부여된다. 시 110편은 시 90-110편 그룹의 끝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면서, 적들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부여함으로써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라는 질문에 신적 해답을 제시한다. 시 89편과는 달리 시 132편에서 시편 기자는 야훼께 다윗 언약(시 132: 11-12)을 상기시키면서 시온에서 메시아의 통치를 재

65) 메이즈는 시편 89편의 제목을 “거절당한 메시아”(the rejected messiah)로 잡았다. 윗글, 283-288쪽.

확인시키고 있다. 시온에 초점을 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맥락 속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인 시 132편은 '시온'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확신시켜 준다. 이 모티프는 시 110편 2절에 '시온'의 견지에서 묘사된 종말론적 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시 144편은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로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시 144: 1-11)에서 메시아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메시아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직접 간섭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시 144: 5-7). 이어서 시 144편은 평화로운 종말론적 축복(시 144: 12-15)의 그림과 함께 끝나고 있다.

## 6. 나가는 말

시편 제 1-3권의 연결부에 위치한 제왕시들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도 불구하고, 월슨은 제 4-5권에 위치한 제왕시들과의 주제상 발전을 관찰하지 못했다. 시편이라는 책 속에서 드러난 시 89편의 메시지는 시편 전체 속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모든 제왕시들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야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희망은 제 4-5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슨이 말한 대로 야훼께 희망을 두고 있었지만, 제 4-5권에서 야훼의 기름부름 받은 자에 대한 기대는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다. 시 110편에서 메시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야훼의 우편에 앉게 되고, 시 132편에서 메시아는 시온에서 다스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시 144편에서 메시아는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의 백성들은 평화로운 축복을 누린다.

월슨의 실수는 시 89편을 시편 전체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제왕시들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않은 데 있다. 시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시 89편은 메시아의 일시적인 고난과 치욕과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시 110, 132, 144편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편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 아니라, 미래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다. 제 4-5권의 제왕시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포로 시기 혹은 포로 시기 이후에 강력히 등장하는 종말론적 메시아 예언들로 말미암아 더

육 선명해 진다.<sup>66)</sup>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 언약은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임을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마1: 1-17).<sup>67)</sup>

## 7. 참고 문헌

- 김 정우, “시편 89편의 성경신학적 기여: 무조건적 언약 속에 있는 조건성의 수수께끼,” 「신학지남」 제 226호(1990), 11-52쪽.
- 김 회권, “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구약논단」 통권28집(2008년 6월), 107-127쪽.
- 박 중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전승,” 「구약논단」 제9집(2000년 10월), 167-189쪽.
- Ahlström, G. W., *Psalm 89: Eine Liturgie aus dem Ritual des leidenden Königs*, (Lund: C. W. K. Gleerup, 1959).
- Allen, L. C., *Psalms 101-150* (WBC 21), (Waco, Tex.: Word Books, 1983).
- Cook, S. L., “Apocalypticism and the Psalter,” *ZAW* 104 (1992), 82-99쪽.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 Frankfort, H., *Kingship and the Gods: A Study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s the Integration of Society & N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Goulder, M. D.,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JSOTSup 20), (Sheffield: JSOT, 1982).
-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sup>5</sup>).
- Hossfeld, F.-L./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NEchtB 29),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Hurvitz, A., “Linguistic Criteria for Dating Problematic Biblical Texts,” *HA* 14 (1973), 74-79쪽.
- Johnson, A. R., *Sacral Kingship in Ancient Israel*,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55).
- Kim, Jinkyu, “Background on the Composition of Ps 144 in Light of its Strategic Arran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Providence, RI., November 19, 2008), 1-16쪽.
- \_\_\_\_\_,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 \_\_\_\_\_,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TJ* 70 (2008), 143-57쪽.

66)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제 4장에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릿글 [2003], 176-286쪽).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67) 사용한 방법론은 다르지만 김 회권이 내린 결론도 필자의 결론과 유사하다(“시편 89편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정치신학,” 「구약논단」 통권28집[2008년 6월], 125-126쪽).

- Koenen, K., *Jahwe wird kommen, zu herrschen über die Erde: Ps 90-110 als Komposition* (BBB 101), (Weinheim: Beltz Athenäum Verlag, 1995).
- Kraus, H.-J., *Psalms 60-150: A Commentary*, H. C. Oswald (옮김), (Minneapolis: Augsburg, 1989).
- Longman, T., III, *How to Read the Psalms*, (Downers Grove, Ill.: IVP, 1988).
- Mays, J. L.,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1994).
- McCann, J. C. Jr.,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3-107쪽.
- \_\_\_\_\_,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 Miller, P. D. J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83-92쪽.
- Mitchell, D.,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Moberly, R. W. L., "יְהוָה" NIDOTTE 1:427-433쪽.
- Sarna, N. M., "Psalm 89: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A. Altmann (ed.), *Biblical and Other Stud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29-46쪽.
- Seybold, K., *Die Psalmen* (HAT 1: 15), (Tübingen: Mohr, 1996).
- Tate, M. E., *Psalms 51-100* (WBC 20), (Dallas: Word Books, 1990).
- Ward, J. M., "The Literary Form and Liturgical Background of Psalm LXXXIX," *VT* 11 (1961), 321-39쪽.
- Westermann, C.,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K. R. Crim(옮김), (Atlanta, Ga.: John Knox, 1981).
-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5).
- \_\_\_\_\_,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쪽.
- Zenger, E.,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SOT* 80 (1998), 77-102쪽.
- \_\_\_\_\_, "Der Psalter als Wegweiser und Wegbegleiter: Ps 1-2 als Proömium des Psalmenbuchs," A. Angenendt/H. Vorgrimler(Hg.), *Sie wandern von Kraft zu Kraft: Aufbrüche, Wege, Begegnungen - Festgabe für Bischof Reinhard Lettman*, (Kevelaer: Butzon & Bercker, 1993), 29-47쪽.
- \_\_\_\_\_, "Das Weltenkönigtum des Gottes Israels (Ps 90-106)," H. Merklein/E. Zenger (Hg.), *Der Gott Israels und die Völker: Untersuchungen zum Jesajabuch und zu den Psalmen* (SBS 15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4), 151-78쪽.

검색어

시편 89편

제왕시

다윗 언약

전략적 위치

종말론

투고일: 2009년 5월 1일

심사일: 2009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25일

---

Psalm 89 in Light of the Strategically Positioned Royal  
Psalms: Is the Davidic Covenant a Failed Mission?

---

**Jinkyu Kim,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It is well known that royal psalms 2, 72, and 89 are strategically placed at the seams of Books I-III because of Wilson's pioneering work on their strategic arrangement. He observed there is a thematic development among these royal psalms.

The key issue is how the Davidic covenant is to be viewed in light of their arrangement. The Davidic covenant is positively viewed in Ps 2. It is transferred to his son Solomon in Ps 72. However, it is negatively evaluated in Ps 89. According to Wilson the heart of the message of Ps 89 is the Davidic covenant failed. He sought to find the answer to this failed mission from Books IV-V. He called the YHWH MALAK psalms (Pss 94-99) the theological heart of the expanded final Psalter. Wilson's negative evaluation of Ps 89 derived primarily from his failure to observe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the royal psalms in Books IV-V.

The method he employed for the study of Ps 89 also involves a logical problem by overlooking the theme of the Davidic covenant from the royal psalms in Books IV-V. The royal psalms that are strategically placed in Books I-III should be compared to those in Books IV-V, not to the YHWH MALAK psalms in Book IV.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unravel that the Davidic covenant in Ps 89 is not a failed mission. This study utilizes my previous research on the royal psalms in Books IV-V("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TJ* 70 [2008], 143-57). The present study will show how the theme of the Davidic covenant develops from Ps 89 to the strategically positioned royal psalms in Books IV-V (Pss 110, 132, and 144). The hope for the anointed of YHWH did not evaporate in the air; it reappears as a new form of the Messianic hope matched with the eschatological hope which appears in prophetic writings in the postexilic period(e.g., Zech 9-14, Joel 3-4[MT], etc.). In Ps 110, the Messiah triumphs in the warfare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YHWH. In Ps 132, the Messiah rules on Mount Zion. In Ps 144, the Messiah will finally win the victory over the enemies in the eschatological warfare and there will be abundant eschatological blessings. In light of this thematic development, the message of Ps 89 will be identified as the Davidic king's *temporary* suffering, humiliation, and rejection. The living hope for the anointed of YHWH in Ps 89 is vividly expressed in the psalmist's exclamation, "How long, O LORD?"(v. 46/H47).

#### **Keywords**

Psalm 89  
Royal Psalms  
Davidic Covenant  
Strategic Position  
Eschatology